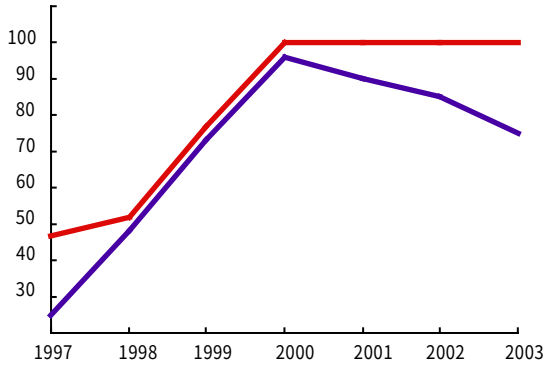
<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 환경오염 잣대의 이중성 ”

환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인가 질문한다면 아마도 정신병자 취급당하기 십상일 것이다. 환경은 우리들이 풍류를 논하던 고전적 낭만을 떠나 이미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있을 수 없으며, 환경오염을 방지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도, 민주주의도, 복지도 아무 쓸데없는 사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환경은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며, 물질문명의 이기와 인간의 무절제하고 끝이 없는 욕심이 우리의 삶 자체를 핍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인간 삶의 질을 구렁텅이로 내몰지 않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연한 책무이고, 의무일 뿐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자손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감상적이고 거창한 구호가 아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입안·집행하지 않은 채 팔짱만 끼고 앉아 있다. 기껏 내놓는 정책이-아니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매월 발표하는 4대강 오염실태 조사보고 뿐 실태파악이나 장기과제로 고심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환경문제를 총괄하는 정부의 중앙부서가 이러한데 타부서나 관련 연구소 및 단체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리 만무하고, 환경오염으로 썩어 들어가는 국토와 식수는 고사하고 수영조차 할 수 없는 수자원으로 한국은 아마도 인구 7000만명의 생지옥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실정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대기오염과 수자원 오염문제이다. 대기오염은 자동차 매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장의 매연배출 및 도시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있다. 역으로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강조할 수 있다.
자동차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휘발유 및 경유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을 줄이면 가능할 것이고, 연료의 CO, HC, NOx 함량을 감축하면 금상첨화이다. 즉, 휘발유 및 경유 사용 자동차를 LPG차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휘발유 및 경유의 환경오염물질 함량을 대폭 감축토록 의무화하면 그만이다.
여기에 원유 도입시 환경세를 부과함으로써 석유제품 사용 자제를 유도하고, 교통세를 대폭 강화해 낭비적인 자동차 운행을 막는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자동차 대기오염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공장 매연까지도 대폭 줄일 수 있으니 일석삼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가의 세수까지를 생각하면…
유럽 국가들이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Auto-Oil 프로그램을 제정해 자동차 연소장치 및 연료의 환경오염물질 함량을 대폭 규제하고 나선 것을 보면 정답이 따로 없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한국자동차협회가 EU와 체결한 자동차 CO_2 감축협정은 무엇을 말해주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유럽은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왜 그러해서는 아니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무엇을 먹고살기에 대기오염에 그렇게도 무신경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세를 도입하고, 교통세를 강화하면 환경부 공무원들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로비의 그림자까지를 차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서유럽 및 미국, 일본에서 PRTR과 HVP가 제도화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환경부가 극비정책이나 되는 것처럼 화학제품 유해성 문제 대응정책의 입안 및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환경문제만 고려하면 최선인 상황에서 스스로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일을 더이상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화학저널 1999/8/2>